

체류형 복합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1928' 착공

교육·체험·거주·커뮤니티 결합...내년까지 120억원 투입 이상철 군수 "지방소멸 위기 해결·청년층 희망 터전 될 것"

교육·체험·거주·커뮤니티가 결합된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인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 곡성군은 오곡면 옛 오곡초등학교에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인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공모해 지원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년까지 120억원 투입된다.

부지에는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결합된 체류형 복합 거점 공간이 조성된다.

또 사업 대상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삼진강기차마을, 침실습지, 동화정원 등과 연계한 건축학교, 숲놀이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곡성스테이션1928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청년들의 희망



의 터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따로 또 같이'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

담양군이 지난 8일 12개 읍·면 지역에서 동시에 군민 1천여명이 참여하는 '따로 또 같이' 담양 가을길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담양군민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 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 피로감을 회복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읍면별로 코스를 나눠 인원을 분산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담양읍은 죽녹원 앞 광장-메타세쿼이아길 약 6km 구간에서 걷기대회를 진행했으며, 각 읍면 별로 코스를 정해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죽녹원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금연, 치매 등 홍보 캠페인도 같이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과 마을단위에서 걷기를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준영기자

나주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건조벼 매입 추진

새청무·신동진 2종 벼 40kg기준 총41만2177포대(1만6487t) 수매

나주시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건조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매입량은 벼 40kg기준 총 41만2177포대(1만6487t)로 이중 공공비축미

는 20만9901포대, 시장격리곡은 20만2276포대로 집계됐다.

수매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2종으로 19개 읍·면·동 농협창고 등 지정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매입 대금은 벼 40kg기준 3만원을 매입 당일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 후 연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쌀 수급조절 및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한 품종검정제 강화 조치에 따라 매입대상 품종 출하로 인해 공공비축미 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왕곡면 양산창고

벼 수매 현장을 방문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나주쌀 생산에 힘써준 농업인들의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많은 농가가 한 번에 몰릴 것에 대비한 품종별 출하 시차제를 통해 끝까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노고달장' 마지막 이야기

지난 7월부터 '문화가 있는 복합 직거래 장터'란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노고달장』이 국화향기 가득한 구례주조장 골목에서 올해 마지막 장터를 열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더욱 볼거리가 다양했다. 조용하던 골목이 견학 나온 어린이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장터는 18개의 판매부스가 운영되어 구례 단감, 동글레, 사인머스켓 등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과 구례지역자활센터의 인기상품 산수유 오란다, 꽃차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수제 양갱, 라임 착즙, 녹차, 우리

밀 빵 등 입맛 돋우는 시식행사로 방문객들의 지갑을 열었으며, 산수유나무 연필, 나무 조리 도구, 패브릭 소품 등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와 구례만의 특색 있는 직거래장터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노고달장』은 7~8월 여름 서시천체육공원 바닥분수와 함께, 9월은 가을 돛자리음악회 테마로, 10월에는 지리산포레스터 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공연과 함께, 11월엔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과 함께 하며 지역 내 축제와 연계하여 길고도 짧은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친환경디자인 우수성 입증해

전남 친환경디자인 공모 우수상... 김한중 군수 "전남체전 유치 도전"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오는 11월 열리는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는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건축물 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다. 황룡강에 인접한 옐로우시티 스타

디움은 수려한 경관을 잘 살린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모에서도 강변 풍경과 건축 미학적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변 경관도 매력적이다. 꽃이 피는 봄, 가을이면 황룡강변을 따라 10억 송이 꽃길이 완성돼 절정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인근 황룡행복마을의 전통가옥과 여우리진 모습도 인상적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친환경디자인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 기자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터 예상 조감도.

화순 동면농공단지 공공임대주택·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화순군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동면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39억2000만 원, 주택기금 22억8000만 원, 도비 3억9000만 원, 군비 31억1000만 원)이 투입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완공 후 30여 년이 지난 노후 산단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와 쉼터 제공으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근로의욕 고취와 청년 인구 유입 강화, 농공단지 활력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